

강수택

본회 회원,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위기와 사회적 과제

1. 현 경제위기의 의미

우리는 현재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경제 위기의 기막힌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지난 연말에는 국가부도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적도 있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몇 고비가 남아 있다.

필자는 이번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과 교회의 교만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약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받아왔다.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많은 나라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나라 밖에서 일부 좋은 일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였다. 기득권 집단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전국민이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 왔는지 잊

어버린 채 모든 것이 자기 공인 양 자랑하여 왔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누리고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기에 인색하였다. 또 일반 국민들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웠던 옛 시절을 잊어버린 채 물질을 낭비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 조선족 동포, 외국인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일이 많았다.

필자는 1989년 11월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90년 10월 독일은 마침내 통일되었다. 통일 후 비록 서독 지역 주민의 불만이 일부 있었지만 정부는 구동독 지역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는 서독 지역의 잘 갖추어진 사회보장 제도에 덧붙여 혜택을 동반한 여러 가지의 특별한 조치들을 통해 동서독간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오고 있다. 필자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서 만약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지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경제의 구조가 취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국민 연금제도의 모델과 운영 방식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리의 뒤떨어진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우리는 돈과 권력의 소유자 가운데에서 돈과 권력의 추구를 위해서는 동포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외환위기라는 의미 이상으로 이제까지의 불건전한 경제구조에 대한 채찍이자 더 이상 이의 개선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고 싶다. 이제 합리적 경제운용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면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룩해내고 대외적으로는 남북통일을 맞더라도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갖추라는 뜻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경제위기가 경제적 과제들뿐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과제들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2. 경제 위기의 사회적 배경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의 거품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들은 우리 보다 두세 배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회와 비슷한 흥내를 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은행돈을 마치 자기돈인 양 착각한 채 무리한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상층 및 중상층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과시적 소비에 빠져 있었으며 나머지 소비자들도 이를 모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물론 기업가나 소비자의 이처럼 무리한 경제활동이 모두 불건전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많은 부분 장래를 위한 재투자의 성격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처럼 과감한 재투자를 통해서 그 동안 우리사회가 급속히 성장해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초래한 무서운 결과이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간에 여러 형태의 불투명한 거래가 형성되었다. 소비자도 무리한 소비를 위해 정당하지 않은 수입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한 부패의 사슬이 형성되어 어느덧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대형 비리 사건에 관한 보도를 수없이 들어왔다. 그 정점에서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한보사건이었다. 한보사건 이후에도 비합리적 경영이 빚어낸 대기업 도산은 이어졌고 마침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게 되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의 비합리성은 어제 오늘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60년대 이래 한국 자본주의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주도아래 발전하여 왔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된 군부정권은 경제를 빠른 속도로 부흥시킬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국가의 계획아래 경제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특정한 기업들이 국가의 비호아래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들은 금융의 특혜를 입어 자금을 동원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을 손쉽게 인수 합병할 수 있었다.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윤 가운데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불공평하게 기업주에게 귀속되었으며 기업주에게 귀속된 많은 경제적 이윤이 부동산 투자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었다. 물론 양질의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나 기업주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재벌 기업의 급성장 배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근래에 와서 미흡하나마 정부의 규제완화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게 형성되어온 정경유착의 관계나 관료제적 지배의 관행이 해소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은 기업경영의 자율화를 기업경영의 효율화로 연결시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업조직의 독점적 지배구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앙 집중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형성되었던 기업조직의 중앙 집중적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소유주에 의한 비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현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배경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 아래 형성, 유지되어온 정부 의존적이며 비민주적인 사회제도와 관행들이 탈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 더 나아가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체제 속에서 재빨리 새롭게 전환되지 못하고 지속되어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민정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 제(諸)영역에서의 제도개혁을 어느 정도 시도하였으나 철학의 빈곤,

준비 미흡, 과정상의 잘못, 그리고 기득권 층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이를 관철시키는 데 번번이 실패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현 위기를 예방할 기회를 가졌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현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이 기업, 특히 재벌기업과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인 국민 대부분이 그 동안 거품경제의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 및 개별 기업의 정보 독점주의적 구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경제 전반과 개별 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상류층 및 중상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 동안 엄청난 국가의 빚 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향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다가 개혁의 호기를 놓치고 만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 또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교회는 과거의 양적 성장을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시키려는 여러 노력을 보여 주었다. 해외선교에 대한 많은 투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 자체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줄어든 느낌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노력이 교회 안팎의 요구에 크게 미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극도로 심화된 물질숭배 사상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동안 여러 번의 엽기적인 살인 사건, 부정 부패 사건 및 이로 인한 대형 참사들을 경험하였다. 사회는 물질주의 대신에 건전한 정신, 가치, 윤리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으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안에 이미 물질이라는 우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없는 차처럼 계속해서 내달았고 마침내 이러한 엄청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3. 사회적 과제와 기독교인의 자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제반 경제적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다만 현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방책으로만 행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 상황은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틀과 관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들을 과감히 개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를 실천할 것인가? 이제 새로 등장하는 정권은 문민정권이 범하였던 잘못을 거울삼아 개혁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고 개혁을 슬기롭게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권이 개혁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과제로서는 흔히 재벌구조의 개혁, 행정구조의 개혁,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든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이해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과제만을 두고 본다면,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보다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개혁의 과정이 반개혁 세력에 의해 좌초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서도 결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의 독점적 권력구조의 틀을 깨고 권력을 사회 전체에 분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경제위기는 결국 우리 기업의 전근대적인 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기업경영이 철저히 창업자 및 가족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이로써 선진국 기업과 달리 우리 기업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어려웠다. 재벌 총수의 개인적인 취향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보다 우선시되며 기업 경영수지의 정확한 규모를 총수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부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채무규모, 외환보유고 등 경제실상에 관한 정확한 정

보가 정부의 특정한 기구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난 11월 사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구성원이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가 근대화되어야 한다. 시장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독과점이 가장 위험하듯이 건강하며 합리적인 사회에는 독점적 지배구조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는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견제기능이 특별히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노사관계가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되어야 한다. 선진국 기업들의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도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주가 인정하여야 한다.

권리와 책임의 분산을 위한 권위구조의 근대화는 학교, 언론, 사회단체 등 여타의 모든 사회영역에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권한남용이 발생하게 되고 각 사회영역에 대한 일반 구성원의 무관심과 수동성이 증대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증대한다. 그리고 일반 구성원들은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좇으며 과소비생활에 빠지는 등 불건전한 생활의 노예가 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비성경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조직과 운영은 특정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의 신앙 중심으로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생명과 사랑, 공의의 산실이어야지 결코 비성경적 권위주의와 보수주의의 산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되 세상의 유행을 무비판적으

20 한국경제의 위기와 사회적 과제

로 쫓다가 부정부패에 휩싸이는 전철을 계속 밟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날에 우리는 먼저 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높으신 뜻에 동참함으로써 마침내 그를 찬양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위기를 맞으면서 필자의 마음은 새삼 시편 15편의 말씀에 사로잡힌다. ✽